

광주·전남 총경급 인사 단행
전준호 서부서장 등 34명 대상

경찰청은 5일 광주서부경찰서장에 전준호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을, 남부경찰서장에 조상현 인천청문감사담당관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2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18면>
전남에서는 목포경찰서장에 이용석전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광양경찰서장에 박상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고흥경찰서장에 임경철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해남경찰서장에 이원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장흥경찰서장에 박준성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됐다.
또 보성경찰서장에 서정순, 화순경찰서장에 강일원, 영암경찰서장에 박인배, 강진경찰서장에 조규향, 담양경찰서장에 윤주현, 완도경찰서장에 신종목, 진도경찰서장에 조영일 총경을 각각 임명했다. /이나라 기자

교사 상대 '갑질' 초교 교장, 교감 강등
전남도교육청 "과도한 질책 교사 인격모독"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 을 해 물의를 빚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등 조치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 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교감·교감 전용 공간을 운영하게 하고 껍데기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 존엄을 훼손한 사례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전남도교육청은 전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비판하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A 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공모 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교감·교감 연수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국밥그릇으로 머리 폭행

○...사소한 말다툼 끝
도리깨 에 서로에게 주먹질한 20대 여성들이 나란히 경찰서행.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 씨(23·여)는 3일 오전 10시께 서구 치평동의 한 국밥집에서 친구 강 모씨(23·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국밥 그릇으로 강 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강씨도 조사과정에서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며 "친구끼리 폭행사건으로 우정도 박살이 난 것 같다"고 한숨. /김종찬 기자

폭염이 부른 여름철 '화기' 주먹질 급증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일로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름철(6-8월)에 발생한 폭행 건수는 1만 3,4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602건, 2016년 5,135건, 2017년 5,040건으로 매년 평균 5,00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에도 6-7월까지 3,106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계절별 광주·전남 폭행 발생건수를 분석하면 여름철

무더위에 사소한 일에도 자제력 잃고 폭력 올 6~7월 사이 폭행사건 3,100여건 발생

(6-8월)이 5,0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3-5월) 4,207건, 겨울(12-2월) 4,204건, 가을(9-10월) 4,052건이다.
이처럼 여름철이 가을에 비해 1,000여건 가까이 폭행사건이 많은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 사소한 시비에도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사소

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박모씨(34)와 이모양(17)을 각각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박씨와 이양은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구 내방 주공 앞 통로에서 서로 마주 오다 어께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어께가 닿은 후 서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성을 높이다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게임을 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노 모씨(52)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기원에서 지인 A씨(68)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카드게임을 하다 시비가 벌어져 화기에 A씨를 때렸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소

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욕'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짜증 범죄, 분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쾌지수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실외활동을 피하기 보다는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다투다 경찰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날씨가 더울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핵심개념·기출문제확인"

수능 D-100일 마무리 학습전략 중요

올해 11월 15일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7일이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공부의욕과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임시 전문가들은 100일간 마무리 학습전략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를 오래 듣거나 기계적으로 많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점수로 꼭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동안 풀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문제, 풀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구분해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분석해야 한다. 수능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기본이다.
본인이 잘 틀리는 문제를 모아놓으면 대부분 비슷한 유형과 개념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EBS 수능 강의와 관련 교재를 참고하는 횟수도 좀 더 늘려야 할 시점이다. 수능에서는 문항 수 기준 70% 수

준까지 EBS 강의·교재와 연계되기 때문에 좀 더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 출제경향이 거의 비슷했다. 따라서, 이번 수능의 출제경향은 요동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훨씬 높았다고 평가받는다. 올해 수능은 이보다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학습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 안배를 위한 학습도 중요하다.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에 푸는 연습을 강화해 실전 대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때 모르는 문제 또는 시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지역 입시관계자는 5일 "수능 성적은 각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다양하게 반영한다"며 "지방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민 기자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결합 등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목포서도 BMW 차량 주행중 '불' 운전자 "사흘 전 안전점검 받았다"

목포에서도 주행 중 BMW 차량이 화재가 발생했다.
5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를 김모씨(54)의 BMW 520d 차량 엔진룸에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지난 1일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진단에서도 김씨의 차량에서

는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BMW는 현재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2016년 11월 이전 생산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장착 차량을 내시경으로 점검해 화재 위험이 있는지 판별 중이다. 김씨의 차량은 2014년식으로 10만 km 가량 주행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행 중 기어가

빠지며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더니 엔진룸 안에서 불길기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올해들어 지난 2일까지 BMW 차량 화재 사고는 31건으로 이 가운데 18대가 520d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520d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자는 "주행 중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길에 차를 세운 뒤 굳이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기 치솟았다"고 경찰에 전했다.
국도교통부는 지난 3일 잇단 화재 사고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운행자제를 권고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1층 ★ 상가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주택) ★ 공원앞 전망 최고 ★

보 9천 / 월 600만(용3억)
▶ 매가 9억3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1층, 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안집1개)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3천
▶ 매가 6천 300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임)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승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승탄역 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1개) ▶ 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